

광주시의회 유급보좌관 재추진 논란

예결위서 6억4000만원 예산 증액 요구기로 밥그릇 챙기기 비난 불가피...집행부 대응 관심

광주시의회가 한 차례 포기했던 유급보좌관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해 집행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 예산 6억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구상하는 유급보좌관제는 광주발전연구원에 '광주시의회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시의원 보좌관을 임시 연구원으로 채용해 시의원을 사무실에 파견 근무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임시 연구원을(유급보좌관)은 연봉 1500만원에 4대 보험에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선발한다.

시의회가 예결위에서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관련 예산 성립이 가능해 향후 집행부의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집행부는 시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년도 예산 83억원을 예결위에서 최대한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시의회의 요구에 대해 '정치적 협상(?)'이 이뤄질지, 또한 지역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유급보좌관제도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광주시의회가 '의정 서포터즈'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유급보좌관을 두기 위한 예산 증액 요구는 사실상 관법적인 유급보좌관제 도입이라는 점에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의회 상임위의 2011년 본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난 뒤 본격적인 예결위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유급보좌관제 예산 증액 요구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유급보좌관제 도입 예산을 요구했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집행부의 반대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포기했다.

이에 대해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타 시·도 의회 사례, 국회 입법화 과정 등을 고려해 최근 16개 시·도의장단 협의회에서 시·도 역량에 따라 단계장과 협의해 관련 예산을 세우기로 합의했다"라며 "광주시장도 최근 '의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또 "일각에서는 집행부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부활을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과 정치적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 관련 예산 증액 동의 요청이 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검토하는 등 다음주 열리는 예결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북구,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무용지물”

최유진 북구의원 지적

광주 북구청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민을 우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 북구의회 최유진(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열린 북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8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돼 구청장이 매년 지원 규모, 사업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지원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7조의 기준

에 해당되지 않아 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경제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정됐으며, 공급관 100m당 최고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실상 지원 조례는 제정만 됐을 뿐 예산 탓에 낯값을 자고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인데도 내년 예산에도 관련 예산은 수립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라며 "고유가 시대에 해마다 연료비 부담으로 고통을 안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극 홍보와 예산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지원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 추경 예산에 성립해 꼭 지원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북구의회 이동국 의원(민주당)도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북구 관내 365개소의 경로당을 살펴본 결과 18개소에 달하는 무허가 건축물 내에 경로당이 소재하고 있어 반드시 합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구청에서 무허가 건축물 내에 경로당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점은 구청 스스로 행정의 정당성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올 8월 감청으로 北도발 징후 확인”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당국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3개월 전인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북한의 서해5도에 대한 도발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1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서해5도에 대한 대규모 공격계획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일부 의원의 질문에 "그런 분석을 했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전했다.

한 정보위원은 "당시 감청 내용은 '해안포부대 사격준비를 하리'는 정도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 위원은 8월 북한의 도발징후 확인 뒤

후속조치를 묻는 질문에 "군이 대비태세를 유지해왔지만 (연평도 사건) 당일과 그 전 감청이 어려운 유선으로 작전을 수행했고, 연평도 사건 후에도 유선으로 통신해 인명피해 등을 측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측 간사대행인 이범관 의원은 "북한이 상시적으로 그런 위협적 행동을 많이 해왔으므로 민간인 포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국정원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김정일·정은 용서 못해”

2일 광주·전남 재향군인회원 1000여명이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앞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김정일·정은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K-9 자주포 대응사격 엉뚱한 곳만 쏘다”

김무성 軍 쇄신 촉구...국정원 “10발은 무도 진지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당시 우리 측의 대응과 관련, “K-9 자주포 80발이 발사됐는데 위성사진으로 탄착점이 확인된 것은 45발이며 나머지 35발은 바다에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전면적 군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위원회에서 “탄착점이 확인된 45발 중 14발은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북한 포는 언제인지 모르게 빠져나가 버렸고 한발도 명중하지 못했으며 14발은 모두 주변 논과 밭에 떨어졌다”며 “K-9 자주포가 반경 50m를 속대발로 만든다고 국방위에서 보고받았으나 (이번 대응 시) 눈에 조금 흩어졌던 것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군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제가 국방위에 있었는데 K-9

자주포의 사격시범도 여러 차례 보았고 북한이 포문을 열고 사격하면 5분 안에 초정밀 K-9 자주포가 대응사격을 하고 북한 진지는 속대발을 만든다고 보고해 지회는 가슴 못하게 안심했었다”며 “국가정보원장이 모두 정밀 조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 알려야 한다. 국민이 군의 현 상황을 알아야 하며 이번 일이 군 쇄신을 위한 전화위북이 위치한 해안포 부대 진지 안에 떨어졌다고 공개했다.”

이날 미국의 전략정보전문기타 '스트랫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북한 측 개머리 해안포 진지 부근의 위성사진에서도 북측 방사포대는 연평도 북서쪽 16.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 군이 쏜 포탄 중 14발은 북한군 포대 뒤쪽 논밭에 떨어진 흔적이 나타났다.

또한, 북측 122mm 방사포 6문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포 진지 근처에는 어떠한 탄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우리 군의 대응 능력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자 국가정보원은 이날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에게 아리랑위성이 촬영한 사진 1장과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업용 위성의 사진 1장을 추가 공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한 80발 가운데 10여발이 북한 무도 내에 위치한 해안포 부대 진지 안에 떨어졌다고 공개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의 포탄이 무도 내 포 부대 진지에 10여 발 떨어졌고, 이 중 1발은 막사 쪽에 명중한 것으로 사진에 나타나 있다”며 “인명피해가 제법 클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지국기자 jkpark@kwangju.co.kr

北 정찰총국 “다음엔 南 본토 포격”

도쿄신문 “연내 경기도 목표”

북한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 간부가 연내 경기도를 목표로 새로운 포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2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지난날 하순 북한 인민무력부의 정찰총

국 간부가 '새해가 되기전 경기도를 목표로 한 새로운 포격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구체적 공격을 전제로 한 발언인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섬이 아닌 한국 본토에 대한 추가 도발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정찰총국 간부가 “서해상

의 한국 군함에도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전했다.

북한의 정찰총국은 한국과 해외에서 공작활동을 담당하고 있고,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다음날인 11월 24일 국회에서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상장이 포격을 주도했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또다른 북한군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했던 군사행동으로, 청년대장(김정은)이 더욱 큰 군사 보복으로 계속 타격을 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특허번호 제 10-0488090호 | 실용신안등록 제 20-0374637호 | 실용신안등록 제 20-0355402호 | 실용신안등록 제 20-0333037호

가맹점 모집

★점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희소식!
전두부 자동 제조기 하나면 OK!
※ 공 관련 업종(기존식당) 재창업 및 업종 변경

전(全)두부란? 기존 두부와 전혀 다른 콩의 고소한 맛과 푸딩처럼 부드러운 이미 선진국에서 장수음식으로 즐겨 먹고 있는 두부입니다.

전두부의 영양 - 전두부와 일반두부의 주요 성분 비교(100g당 함량)		
전 두 부 : 약 3400mg(약 11배)	식이섬유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아주므로 성인병 예방, 변비개선 및 다이어트 효과
일반두부 : 약 300mg		
전 두 부 : 약 27.63mg(약 270배)	사포닌	대두의 사포닌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심장병, 담석증 예방에 효과
일반두부 : 약 0.1mg		
전 두 부 : 약 29.95mg(약 30배)	레시틴	대두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알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우울증, 골다공증 등의 예방에 효과
일반두부 : 미량		
전 두 부 : 약 28.17mg(약 3배)	이소플라본	식물의 배아에서 분리된 특수 지방질. 이 성분은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체내 에지방 해독작용
일반두부 : 약 9.3mg		

초보자 창업 | 제조공정이 간단하며 본사의 적극 기술 지원 창업 용이

소자본 창업 | 가맹비, 로열티가 없다. 창업자금(소상공인, 리스) 지원 운영, 홍보 등 본사 적극 지원

고수익 창업 | 점포 선정부터 완벽 노후유지, 우수, 매뉴(기능성) 다양으로 인한 고수익, 본사 적극 지원

100% 국내산 콩만을 고집하는 명품 두부
가능성 두부(녹차두부, 카레두부, 흑두부, 속두부)
※ 최고 상권 다량 확보 보유, 적은 형벌 ~ 큰 형벌 운영 가능

오른 가능 지역 | 광주, 순천, 목포, 여수, 전주, 익산, 군산

광주·전남 체인본부 | NAVER | 대양하이텍 | 검색

상담 ☎ 062) 383-0029, 080-335-0202 (콩이머리)
문의 ※ 위치 :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 후문 옆 ※ 매주 토요일 PM 1:00~ 시식 가능합니다.

오전 1호점 | 광주 금호지구 | 종원팰리스빌 및 텃밭 상가 옆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